

하경택(장신대)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시도한다. 시편 110편은 초기 교부시대부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본문으로 나타난다.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활동을 예언하는 본문으로 해석되어 메시아사상의 굳건한 토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 가운데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과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문으로 읽게 하는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편 110편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은 시편 110편이 의미하는 바의 전체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시편 110편이 현대 주석가들에 의해서는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www.kci.go.kr

2. 시편 110편의 해석사: 교부시대에서부터 종교개혁시대까지

시편 110편은 초기 교회시대에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논쟁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순교자 저스틴은 1절에서 말하는 ‘주’가 히스기야를 지칭하며 2절에서 언급하는 통치가 히스기야 시대의 예루살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유대교 랍비들의 해석에 반대하였다. 저스틴은 히스기야는 영원한 제사장이 아니었으므로 시편 110편이 말하는 ‘주’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다고 주장함으로써 시편 110편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지지했다.¹⁾

어거스틴은 시편 102편 18절(“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에 근거하여 시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시편 2편과 110편이 메시아 예언으로서 짝을 이룬다고 말하며, 시편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을 길에 대한 이정표가 아니라 길 자체가 되게 하신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요 다윗의 주로서 찬양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면서, “다윗은 그의 아들의 출생을 통해 영광을 받고 그의 아들의 주되심을 통해 해방된다.”고 말한다.²⁾

제롬은 어거스틴과 동시대 사람으로서 어거스틴의 해석을 비판하면서 비판적 연구를 시도했지만 시편의 예언적 의미를 인정했다.³⁾ 제롬은

* 이 논문은 2017년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1)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487.
- 2)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488. 이외에도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서의 중심이며(“예수 그리스도는 성서를 하나로 묶는다. 왜냐하면 그는 성서의 종말점(endpoint)이자 충만(fullness)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해석은 성령에 의해 주어지는 “새로운/영적 의미” 안에서 발견된다고 말한다. S. J. Henri de Lubac, *Medieval Exegesis: The Four Senses of Scripture*, vol. 1, trans. Mark Sebanc (Grand Rapids: Eerdmans, 1998), 237.
- 3)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489.

히브리어 본문을 따라 1절에서 야훼와 지상의 ‘주’를 구분하였고, 예수의 신성과 인성이 시편에서 확인된다고 보았다. 3절의 ‘날’이 영원한 하나님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며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시켰다.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그 시작’은 영원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인간으로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서 도움을 위한 기도를 드린다. 제롬은 그러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편의 기도에서 찾아내었다.

다음으로 루터의 시편 해석이다.⁴⁾ 그는 중세의 해석전통과 결별할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이 중요했다. 첫째로, 그는 한 본문이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본문의 다의성(polysemy)을 부정했다. 둘째로, 그는 성직자만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성직주의를 거부하고, 본문의 ‘문자적 의미’ 파악에 주력했다. 그가 말한 ‘문자적 의미’(literal sense)는 단순히 세 가지 다른 의미와 구별되는 사실적 의미가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개인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확신과 관련된 실제적 의미를 나타냈다. 그것은 구원 자체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의미했다. 그는 성서 본문에 대한 깊은 실존적 이해를 경험하고자 하는 요구를 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감행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서를 이해했다. 그는 성서의 모든 부분이 직접적이든 은유적이든 상관 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있는 것처럼 이해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루터의 그리스도 중심적 해석학은 시편 110편에 관한 해석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그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는 명령을 ‘신적이라고 불리는 위엄과 권세를 가지라’는 의미로 해석한다. 그는 이 시편에 대해 123쪽에 달하는 긴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는다. “이 아름다운 시편은 성서 전체의 중심이자 핵심이다. 다른 어떤 시편도 이처럼 그리스도에 관하여 풍부하고 아름답게 예언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

4)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491-492.

은 주님과 그분의 왕국 전체에 관하여 묘사하고 있으며,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준다.”⁵⁾

다음으로 칼뱅의 해석이다.⁶⁾ 그는 루터를 토대로 자신의 방법론을 발전시킨다. 그는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의미를 찾고자 한다. 그의 역사관은 하나님을 모든 인간사에 대한 주권자로서 인식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의 자리를 성서 전체가 증언하는 ‘교회’의 연속체 안에서 보는 것이다.⁷⁾

그는 ‘의인법(擬人法)’(prosopopeia)이라는 고전적 개념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표본’으로 이해한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시편에 나타난 하나의 기도 전체가 그리스도의 기도로써 해석될 수 있었다. 또한 그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시편과 그것들의 계속되는 해석에 통일성을 부여한다고 말한다. 자신의 백성, 즉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교회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래서 칼뱅은 독자를 하나의 본문으로 안내한다. 그래서 그 독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시대로부터 그의 제자로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성도들과의 교제 안에서 그 본문을 공유할 수 있다. 그는 시편 110편에 대한 해석에서 다윗의 왕권의 유일성과 그리스도의 왕권 사이에 있는 유형론적 연결성을 인지한다. 그러나 칼뱅은 다윗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의 정체성을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의 왕국이 공간적으로는 우주 전체에 미치며 시간적으로

5) Luther's Works, vol. 13, 348.

6)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493-496.

7) 칼뱅은 알레고리와 유형론을 구분하면서, ‘유형(type)은 약속과 성취를 위한 유일한 장르(specie)’라고 말한다. 그가 말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역사적 해석 방법인데 그것은 그의 언약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의 연속성에 기초한다. 칼뱅은 종말론적 유형론을 수용하는데 그것의 근거는 성서의 저자의 유일성과 성서의 통일성에 근거한다. 그는 출애굽 사건들과 예수의 십자가-부활-승천을 인간의 역사에 대한 모든 해석을 결정하는 하나의 연속체로서 이해한다.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493.

영원까지 이룬다는 사실을 예언적으로 선포한다.

이상 종교개혁시대까지의 해석사는 시편 110편의 해석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한다. 첫째, 모든 해석자들은 이전의 해석 전통에 잇대어 있다는 사실이다. 후대의 해석이 이전 전통을 이어가든 반대하든 이전 전통과 나름대로의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주석은 시편 110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고 해석한다. 시편 110편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 전통 가운데 있는 시편 110편이 오늘날 독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시편 110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성취된 예언으로만 읽혀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편 110편이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 시편으로서 읽혀지고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시편 110편을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

3. 본문 주석

1) 사역

1절 다윗의 시

내 주(יְיָ)에 대한 야훼의 말씀입니다.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네 대적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2절 야훼께서 당신의 능력의 홀을 시온으로부터 보내실 것입니다.

당신의 대적들 가운데서 통치하소서.

3절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온전히 헌신합니다.⁸⁾

8) 이 문장의 히브리어 원문(יְיָ אֱלֹהֵינוּ יְיָ אֱלֹהֵינוּ)에는 동사가 없고 술어가 실명사로 나타나는 명사문장이다. 이때 실명사 술어는 주어와 동일한 것으로서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형용사 술어나 동사 술어에 비해 주어의 뜻을 더 강조한다. 간혹 실명사 술어가 복수형으로 나타나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거룩의 찬란함 가운데서⁹⁾ 새벽의 모태로부터,
당신의 젊음¹⁰⁾의 이슬이 당신께 있습니다.

4절 야훼께서 맹세하셨고,
그는 그 뜻을 돌이키지¹¹⁾ 않을 것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¹²⁾ 영원한 제사장이다.”

5절 당신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יְיָ)께서,
그의 진노의 날에 왕들을 쳐부수십니다.

6절 그가 이방 가운데서 심판하여 시체들로 가득하게 하시며,
큰 나라¹³⁾에서 머리¹⁴⁾를 깨부수십니다.

7절 그가 길에 있는 강으로부터 마시리니,
그러므로 그가 머리를 드실 것입니다.

구절에서 그렇다(G-K § 141c). 그래서 필자는 여기에서 ‘온전하’라는 표현을 덧붙였다.

- 9) ‘찬란함 가운데서’라고 번역된 부분의 히브리어 표현은 <베하르레-코데쉬>(בְּהַרְרֵה־קֹדֶשׁ)이다. 이것은 <베하르레-코데쉬>(בְּהַרְרֵה־קֹדֶשׁ) “거룩한 산들에”)와 혼동하기 쉽다. 이 부분에 대한 소(小)마소라(mp)는 그러한 혼동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베하르레-코데쉬>와 혼동하지 말 것을 주문한다. 실제로 <베하르레-코데쉬>는 시편 87편 1절에서 시온의 위치를 말하는 “거룩한 산들에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어 그러한 혼동을 일으키는데 일조한다.
- 10) 여기에서 ‘당신의 젊음’으로 번역된 <알두테카>(אֲדוּתֶךָ)에는 <알두트>(אֲדוּת)라는 실명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 낱말은 시간적으로 이해하면 ‘젊은 시절’을 의미하지만(전 11:9, 10), ‘젊음’ 자체를 의미할 수 있다. 70인경은 이 부분을 <엑스에게네사 세> (ἐξέγεννησά με)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어, 이 부분을 <엘리트카>(עֲלִיטָה)라고 이해하고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해는 자음을 수정하지 않으면서도 시편 2편과 같이 왕위 즉위식을 배경으로 하는 제왕시의 분위기에 잘 맞는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하지만 현재의 마소라 본문이 이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마소라 본문을 수정하지 않기로 한다.
- 11) 소마소라는 <인나헬>(אֲנָהֵל)이라는 표현이 구약성경에서 본 절을 포함하여 4회 등장하고 있음을 지적하는데(출 13:17; 사 2:18; 삼상 15:29), 네 곳 모두 “그가 뜻을 돌이키다(또는 후회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 12) <알-띠브라티>(אֲל־תִּבְרָתִי)에는 <다바르>의 여성형 <디브라>(דִּבְרָה)가 사용되었는데 ‘방식’(manner)의 의미로 사용된 유일한 용례이다. 욥기 5장 8절에서는 ‘나의 일’(עֲמָלִי)의 의미로, 전도서(3:18; 8:2; 7:14)에서는 ‘~에 관하여’(עַ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띠브라티>에 있는 접미어 <이>(י)는 연계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연결모음으로 이해된다(G-K § 90 k-1). 70인경은 이것을 ‘순번’(τάξις)으로 이해한다(눅 1:8 참조).
- 13) ‘큰’이라고 번역된 히브리말 <랍바>(רַבָּה)는 ‘수많은’(numerous), ‘많은’(many)의 뜻이 있지만, ‘큰’(great)이란 뜻도 있다. 여기에서는 ‘나라’(에레츠)를 수식함으로 ‘큰’으로 번역한다.
- 14) 70인경은 <로쉬>(“머리”)를 복수로 이해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사람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2) 구조

시편 110편에 대한 구조 분석은 세 단락으로 구분하려는 입장과 두 단락으로 구분하려는 입장이 서로 맞서고 있다. 세 단락으로 구분하는 학자들은 본 시편에서 4절이 차지하는 의미를 특별하게 여긴다. 예컨대, 넬(P. J. Nel)은 1-3절과 5-6절은 대적의 굴복에 관한 축복의 신탁인데 반해, 4절은 왕을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신탁으로서 이 시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고 평가한다.¹⁵⁾ 이와는 달리 포드샤르(E. Podechard)는 3절이 4절의 신탁을 위한 길을 예비하는 구실을 한다고 평가하면서 1-2절, 3-4절, 5-7절의 세 단락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¹⁶⁾

이러한 두 가지 입장이 있지만 필자는 두 단락으로 구분하는 입장을 취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가 시편 110편을 좀 더 용이하게 이해하게 하고, 본문의 구조와 흐름을 더욱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단락으로 구분할 때 아래와 같이 본문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

I. 야훼의 말씀: 야훼와의 ‘공동 통치자’로서의 왕 (1-3절)

1절 말씀 인용: “내 우편에 앉으라”

2절 시온으로부터의 통치

3절 ‘권능의 날’의 시온 왕

II. 야훼의 맹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왕’

4절 맹세 인용: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5-6절 ‘제사장-왕’의 우편에 있는 야훼

7절 ‘제사장-왕’의 승리

15) P. J. Nel, "Psalm 110 and Mechizedek Tradition," *JNSL* 22.1 (1996), 6.

16) E. Podechard, "Paume 110," 13; L. C. Allen, *Psalms 101-150*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3), 85에서 재인용.

본 시편에서 더욱 뚜렷하게 고찰되는 것은 두 개의 단락이 보여주는 구조상의 유사성이다.¹⁷⁾ 두 단락 모두 야훼가 주어로 등장하는 도입구로 시작한다(1절 전반절: ‘야훼의 말씀’; 4절 전반절: ‘야훼의 맹세’). 또한 이어서 야훼의 발언이 각각 인용된다(1절 후반절: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네 대적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4절 후반절: “너는 뿔기세택의 방식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리고 나서 두 단락 모두에서 ‘예언자적’ 화자의 발언내용이 소개된다(2-3절; 5-7절). 이러한 유사성과 더불어 차별성도 동시에 고찰된다.¹⁸⁾ 전반부는 화자의 ‘주(主)’(lord)가 왕으로서 나타나지만, 후반부는 제사장으로서 불린다. 전반부에서는 ‘내 주(主)’가 야훼의 우편에 앉으라고 지시되지만, 후반부에서는 주님(야훼)께서 화자의 ‘주(主)’의 오른 편에서 계신다. 이때 ‘당신의 권능의 날’(3절)과 ‘그의 진노의 날’(5절)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다. 한편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구절과 마지막 구절이 의미의 대조를 통한 대응을 이룬다.¹⁹⁾ 1절의 대적들을 밟고 있는 ‘네 발들’과 7절의 들어 올리는 승리자의 ‘머리’가 대조를 이루면서 시편 110편 전체를 감싸고 있다.

3) 양식과 배경

시 110편의 ‘삶의 정황’(Sitz im Leben)에 관한 견해들은 그동안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신년축제, 계약갱신축제, 시온 왕실축제, 예루살렘으로의 법궤 이동, 다윗 언약의 승인, 예루살렘 정복 후 축하의식, 전쟁에 출정하는 왕을 위한 교훈, 시편 2편과 21편에 대한 숙고, 솔로몬

17)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0.

18)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0-501.

19) L. C. Allen, *Psalms 101-150*, 85. 또한 본 시편의 구조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종신대학교출판부, 2010), 348-350.

의 즉위식 등 10가지로 요약된다.²⁰⁾ “내 오른 편에 앉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보다도 ‘왕위 즉위식’의 상황에 잘 어울린다. 시편 110편은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예식의 상황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식에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언자적 신탁’(prophetic oracle)을 포함하고 있다.²¹⁾ 하지만 시편 110편의 ‘삶의 정황’은 즉위식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당신의 권능의 날’(3절)이라는 표현 속에서 전쟁을 위한 출정식이나 적국에 대한 승리의 날을 떠올릴 수 있다(아래 본문 해설을 보라). 중요한 것인 시편 110편이 시온에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을 위해 생성되었으며 그와 관련된 의식에 사용된 것이라는 사실이다.²²⁾ 따라서 본 시편은 시편 2편이나 45편, 89편, 132편 등과 같이 ‘제왕시’로 분류된다.²³⁾

이러한 시편의 배경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이 시편의 화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도 논쟁거리 중 하나이다.²⁴⁾ ‘예언자적 신탁’을 근거로 궁정 예언자(A. Weiser/K. Seybold)나 제의 예언자(S. Mowinckel/A. A. Anderson/H.-J. Kraus)를 상정하거나 예언적 계시 양식을 차용한 궁정

20) 자세한 것은 다음을 보라. E. E. Johnson,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 *Bibliotheca sacra*, 149/596 (Oct – Dec 1992), 430.

21)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0. 힐버(J. W. Hilber)는 시편 110편과 앗시리아 궁정예언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① 두 본문 모두 도입 형식구로 시작한다(110:1). ② 두 번째 도입 형식구를 통한 단락 나누기(110:4). ③ 발언의 수신자와 발화자의 인칭이 바뀐다(110:4–5, 6–7). ④ 신과 왕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합법화(“오른 쪽에” 110:1). ⑤ 왕의 발아래에 있는 대적들(110:1). ⑥ 적들이 파멸될 것에 대한 약속(110:2, 5–6). ⑦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약속(110:3). ⑧ 거짓에 대한 부정이 동반된 신적인 약속(110:4). ⑨ 제사장적 책무에 대한 확인(110:4). ⑩ 제왕적 특권의 영원성(110:4). J. W. Hilber, “Psalm CX in the Light of Assyrian Prophecies,” *Vetus Testamentum* LIII/3 (2003), 355–358; 동저자, *Cultic Prophecy in the Psalms* (BZAW)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76–88, 특히 76–80쪽.

22) 제왕시의 ‘삶의 정황’에 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K. Seybold, 『시편 입문』, 57–58, 133.

23) 이와는 달리 여전히 이 시편을 메시아 시편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컨대, 왈키는 이 시편이 다윗에 의해 쓰인 것으로서 장차 나타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메시아 시편이라고 보며(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16–518). 게르스텐베르크는 제2성전기에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반영한다고 여긴다(E. S. Gerstenberger, *Psalms* 2, 267).

24) J. W. Hilber, “Psalm CX in the Light of Assyrian Prophecies,” *Vetus Testamentum* LIII/3 (2003), 354.

시인/가수의 진술로 이해한다(H. Gunkel). 여기에서 화자를 누구로 보든 분명한 것은 시편 110편에는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예언적’ 요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특별히 1절의 〈네움 야훼〉(יְהוָה יְהוָה)라는 표현은 예언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구이다. 이 표현은 구약성서에서 376회 등장하나 1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의 발언에 관한 표현으로 나타난다.²⁵⁾ 더 나아가 1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의 발언 내용이 직접 인용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발언을 인용하고 전달한 사람이 반드시 ‘예언자’이어야 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 궁정신학에 관여한 제사장, 서기관, 지혜자 등 다양한 직책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시편 45편의 화자). 그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시편 110편의 화자를 ‘예언자적 시인’(prophetic poet) 혹은 ‘예언자적 화자’(prophetic speaker)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본 시편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양하다. 시편 110편의 생성시기에 대한 입장들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²⁶⁾ 첫째로, 이 시편은 ‘즉위시편’으로서 전체가 혹은 부분적으로 왕정시대, 즉 포로기 이전에 생성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솔로몬이나 요시아와 같은 특정 왕의 즉위식에 이 시편을 관련시키기도 한다.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의 왕실 제의에 이러한 즉위의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시편 110편에서 다루어진 동일한 주제와 사상이 이집트(M. Görg, *Thronen zur Rechten*, 1996; R. Kilian, *Der “Tau”*,

25) H. Eising, Art. מְהִימָן, *ThWAT V*, 120.

26) 세 가지 입장을 가운데 각 입장을 대변하는 학자들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고하라. F. L. Hossfeld/E. Zenger,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Herder, 2008), 202-203. 또한 다음을 참고하라. L. C. Allen, *Psalms 101-150*, 83-84; 김정우, 『시편주석 III』, 351-352. 이 세 가지 입장 외에도 이 시편을 제2성전기에 일어났던 메시아 대망사상을 반영하는 메시아 시편으로 읽으려는 시도가 있고(E. S. Gerstenberger, *Psalms 2*, 267). 더 나아가 알렉산드리아 유대-헬라 공동체가 만들어 낸 승리의 노래라고 보는 입장도 있다(M. von Nordheim, *Geboren*, 2008, 112, 307).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김태경, “시편연구사 -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 (2014. 9), 332.

1990; K. Koch, *Der König*, 2002)와 신앗시리아(J. W. Hilber, *Cultic Prophecy*, 2005) 궁정 제의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얻는다. 둘째로, 이 시편이 마카비-하스몬 왕가의 시대에 생성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마카베오상 14장 41절의 지평에서 이 시편은 하스몬 왕가의 '제사장-왕'인 시몬(주전 143-135년)의 정당화 본문으로 읽혀지거나 또는 그의 즉위식(주전 140년)과 관련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시편 110편의 최종 본문은 하스몬 왕가의 대제사장직을 합법화하는 문서로서 기능한다고 평가받는다(A. Schenker, *Textkritik*, 2008; S. Schreiner, *Ps CX*, 1997). 셋째로, 앞의 두 입장 사이에 있는 중간적 입장으로서 이 시편은 포로기 이후 (초기)의 이스라엘 회복 프로그램 본문이라는 것이다. 시편 110편은 포로기 이전의 '제왕신학'(Königstheologie)을 수용하되 거기에 제사장직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결합시켰다고 평가한다. 여기에는 제사장직도 함께 수행하게 되는(슥 6:9-15) 새로운 또는 갱신된 '다윗' 왕정에 대한 기대(사 11:1-9; 겔 34:23)가 반영되어 있다(C. Körting, *Zion*, 206-217; M. Saur, *Königspsalmen*, 2004).

필자는 위의 논의 가운데 첫 번째와 세 번째 입장을 절충하는 입장을 취한다. 시편 110편은 본래 왕정시대 왕위 즉위나 왕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에서 사용되었으나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회복을 꿈꾸는 일종의 '프로그램 본문'으로 활용된 것이다. 따라서 시편 110편에서 왕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예루살렘 제의를 이어받은 초기 다윗 왕정은 '제사장-왕'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흔적이 다윗과 솔로몬의 행적에서 발견된다(아래 4절에 대한 '본문해설'을 보라). 이러한 '제사장-왕'으로서의 왕의 모습은 다윗-솔로몬 이후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 재건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지도자는 다시금 '제사장-왕'의 모습을 가진 다윗계열의 왕이어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 110편은 다윗 왕정 초기기에 있었던

‘제왕신학의 재발견’(Wiedergewinnung der Königstheologie)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후대 발전될 메시아사상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4) 본문 해설

(1) 야훼의 말씀: 야훼와의 ‘공동 통치자’로서의 왕 (1-3절)

① 말씀 인용: “내 우편에 앉으라”(1절)

먼저 시편의 표제어에 대한 이해이다. <레다비드 미즈모르> (לְדָוִד מִזְמוֹר)는 보통 ‘다윗의 시’로 번역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전치사 <레> (לְ)는 그 의미의 다양성과 함께 ‘다윗에 의한/위한/관한’ 등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필자는 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본다. 전통적으로는 이것이 다윗의 저작성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되었으나, 현대의 구약학자들은 이것이 이차적으로 추가되어 시편 읽기를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고 본다.²⁷⁾ 필자는 ‘다윗의 시’가 단순히 다윗이 이 시편을 저작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모범이요 모델인 ‘다윗을 위한’ 또는 ‘다윗에 관한’ 시편임을 나타내는 표제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럴 때 이 시편은 메시아가 도래할 때만 의미 있게 되지 않고, 시편 110편에 묘사된 ‘제사장-왕’에 대한 약속과 기대가 과거뿐 아니라 현재에도 의미 있게 다가오게 된다.

이어서 도입부가 나타난다. ‘야훼의 말씀’이라고 번역된 <네움 야훼> (נְאוֹם יְהוָה)가 예언서에서는 보통 단락 끝에 나온다.²⁸⁾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나 ‘야훼의 말씀이 임했다’는 말로 시작하여 <네움 야훼>라는 말로 끝맺음으로써 자신이 전한 말씀이 야훼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27) 표제어의 기능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W. P. Brown, 『시편』, 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155-156; K. Seybold, 『시편 입문』, 이군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123-125;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36 (2010. 6), 92-115.

28) H. Eising, Art. נְאוֹם, ThWAT V, 120.

사실을 확증한다(렘 31:35-37; 34:17; 겔 26:3-5; 30:6 등). 이 표현은 예언자들이 예언 선포를 위해 즐겨 사용하던 전문용어였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표현이 이사야 56장 8절이나 스가랴 12장 1절에서와 같이 단락의 서두에 나타난다. 이 표현을 통해 ‘예언자적’ 시인은 자신의 말이 ‘야훼께로부터 온’ 말씀임을 강조한다.

“내 우편에 앉으라. 내가 네 대적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라고 인용된 야훼의 말씀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내용은 “우편에 앉으라”는 명령이다. 이 명령을 솔로몬 왕궁이 성전의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진술이라고 이해하기도 한다.²⁹⁾

하지만 이집트의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우편에 앉으라”는 명령은 실제 야훼의 보좌 오른쪽 편에 앉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 참조). 우편은 영광의 자리이다(왕상 2:19).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영광, 권세, 위엄을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더 나아가 이것은 야훼와 함께 통치하는 ‘공동통치’(Mit-Thronen)를 의미한다.³⁰⁾ 이것은 단순히 왕에 대한 존중과 선택을 넘어서 왕으로 하여금 야훼 자신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는 ‘공동 통치’로의 초대이



그림 1) 이집트 파라오 하렘합(Haremhab, 1345-1318) 이 왕의 신 호루스의 우측에 앉아 있다. O. Keel, *Die Welt der altorientalischen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233.

29) 솔로몬 왕궁의 위치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O. Keel, *Die Welt der altorientalischen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Am Beispiel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241; D. R. W. Wood and J. D. Douglas (ed.), *New Bible Dictionary* (Leicester: IVP, 1996), 1129.

30)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06.

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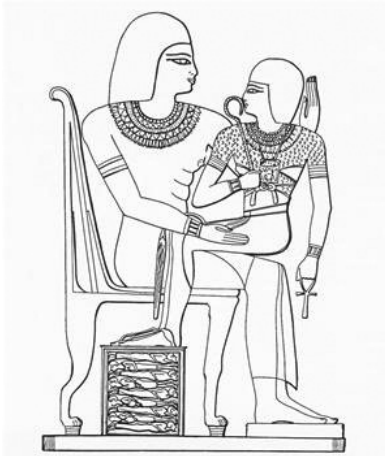


그림 2) 투트모시스 4세(1422-1413) 시대 헤케르네헤(Hekaerneh)의 무덤에 있는 그림. 신의 무릎에 앉아 있는 왕의 발판에 정복된 원수들이 갇혀 있다. O. Keel, Die Welt der altorientalischen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233.

‘발판’(《하돴》, 𓆎𓅓𓏏𓏂)은 하늘의 보좌와 함께 언약궤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언급된다(시 99:5; 132:7; 애 2:1; 사 66:1; 대상 28:2). 그러나 여기에서는 왕좌 앞에 놓인 발판으로서 대적에 대한 승리와 완전한 제압을 의미하는 은유로 사용되었다. 대적들을 발판으로 삼는 예들은 텔 엘 아마르타 편지나 이집트의 도상학에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³²⁾

야훼께서 보좌에 ‘좌정’하는 것은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야훼의

통치를 의미한다(사 6장; 시 93편, 99편).³³⁾ 이뿐 아니라 야훼의 ‘좌정’을 통한 통치가 동시에 민족들을 이스라엘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심을 의미할 수 있다(시 47:8=47:3).

그렇다면 1절에서 ‘내 주’(《야궤》, 𓆎𓅓𓏏𓏂)가 가리키는 인물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 시편의 장르와 성격을 규정하는 것과 연관된다. 이것은 다윗인가 다윗의 후손인가 아니면 미래의 메시아인가를 의미하

31) 이와 유사하게 역대기는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야훼의 나라와 왕위로 표현한다. 다윗 언약에서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대상 17:14)라고 말하고 있고(삼하 7:16과 비교해 보라),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야훼께서 주신 왕위(직역하면 ‘야훼의 왕위’)에 앉아”(대상 29:23) 왕이 되었다고 말한다.

32) 김정우, 『시편주석 III』, 354.

33) 원수를 굴복시키는 것으로서의 보좌 개념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Ute Neumann-Gorsolke, *Herrschen in den Grenzen der Schöpfung.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am Beispiel von Psalm 8, Genesis 1 und verwandten Texten* (WMANT 10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99-121.

는가?³⁴⁾ 이것은 양식과 배경에서 살펴보았듯이 ‘지상의 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역대기의 솔로몬에 대한 서술(대상 29:23)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온의 왕은 야훼의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지상의’ 시온 왕에 대한 서술은 후에 메시아 예언으로 이해되어 천상의 야훼 보좌에서 우주적인 통치를 수행하는 ‘메시아적 인물’로 해석된다(아래 ‘신약성서의 수용’을 보라).

② 시온으로부터의 통치(2절)

2-3절은 1절에서 인용된 야훼의 말씀에 대한 해석과 설명이다.³⁵⁾ 화자는 2절 전반절에서 ‘야훼께서 당신의 능력의 홀을 시온으로부터 보내실 것’이라고 말한다.³⁶⁾ 시온은 하나님의 거주지로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장소이다.³⁷⁾ 또한 ‘세계의 배꼽’으로서 천상과 지상의 차이가 초월되고 천상과 지상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하다.³⁸⁾ 그러한 의미에서 야훼께서 능력의 홀을 ‘시온으로부터’ 보내실 것이라는 진술은 1절의 하나님의 ‘좌정’에 대한 언급과 자연스런 연결점을 갖는다. 여기에서 ‘홀’이라고 번역된 <마테>(מַטֵּה)는 막대기 또는 지팡이를 가리키

34) E. E. Johnson,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 *Bibliotheca sacra*, 149/596 (Oct - Dec 1992), 431. 라쉬는 ‘나의 주’를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할 수 있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시편 110편에 대해 주석을 두 가지 판본으로 저술하였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윗으로 보는 것이다. M. I. Gruber, *Rashi's Commentary on Psalm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7), 645-654.

35) 물론 2-3절과 5-7절을 하나님의 발언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종종 1인칭과 3인칭은 교환되어 서술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2-3절과 5-7절은 시편 110편의 구성상 1절과 4절의 직접인용 이후 예언자적 시인의 해석과 설명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36) ‘능력의 홀’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곳에서 발견된다(렘 48:17; 겔 19:11, 12, 14). 그러나 두 책에서는 모압(렘 48:17)과 이스라엘(겔 19장)의 부러진 ‘통치의 홀’을 말한다(시 2:9 참조).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08.

37) 시온의 의미에 관하여 필자의 줄고를 참조하라. 하경택,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 - 시편 87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7/2 (2015. 6), 13-40. 특히 18, 25-26쪽.

38) ‘시온으로부터 능력의 홀을 보내다’는 표현에서 시온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시온 중심주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삼하 5:7, 9; 시 48편: 132:13-18; 행 1:8 등).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5.

는데, 왕의 통치와 관련된 진술에서는 통치자의 증표로서 왕의 권위와 힘을 상징한다(사 10:5).³⁹⁾ 이제 시온의 왕에게는 야훼께서 보내신 ‘능력의 흠’이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시인은 후반절에서 자신의 ‘주’인 시온의 왕에게 말한다. “당신의 대적들 가운데서 통치하소서.” 여기에서 ‘통치하소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다>(לָדַד)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서도 등장한다. 이 동사는 기본적으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행위를 나타내나(을 4:13[3:13]), 강력한 힘으로 다스림을 나타낼 때 사용된다(레 25:43; 26:17; 겔 34:4).⁴⁰⁾ ‘시온으로부터 보내진 능력의 흠’을 가진 시온 왕은 ‘대적들 가운데서’도 통치할 수 있다. ‘당신의 대적들 가운데서’(〈베케레브 오예베카〉, (בְּקִרְבֵּי אֹיְבֵיךָ))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으로는 대적들의 한 가운데서, 즉 대적의 심장부에서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왕의 통치를 생각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적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주위의 모든 세력을 압도하는 왕의 통치를 생각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시온 왕이 행사할 통치가 이스라엘 안에서만 머물지 않고 열방들에게까지 미치는 세계적인 것임을 알게 한다.

③ ‘권능의 날’의 시온 왕(3절)

3절은 시온 왕에게 주어진 조건에 대한 진술의 연속이다.⁴¹⁾ 여기에서는 ‘당신의 권능의 날’에 집중한다. ‘권능의 날’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 날은 왕으로 태어난 출생일(실제로는 왕위에 오른 즉위일)을 가리킬 수도 있고,⁴²⁾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출정일을 말할

39)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5.

40) H.-J. Zobel, Art. 777, *ThWAT VII*, 355.

41) 구약성경 가운데 가장 난해한 구절 중 하나로서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42) 크라우스는 3절 마지막 부분을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70인경의 읽기 방식을 따르면서 이 날을 왕의 즉위일로 해석한다. H.-J. Kraus, *Psalmen 60-150*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0), 755, 759.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날을 의미할 수도 있다.⁴³⁾ 여기에서 이 날을 어느 특정한 시기로 제한할 필요는 없다.⁴⁴⁾ 이 시편은 위에서 말한 다양한 상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이 ‘권능의 날’에 왕에게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있다. 여기에서 ‘백성’은 일반 백성을 가리킬 수도 있으나 전쟁에 나갈 군대를 가리킬 수도 있다 (예컨대, 사 20:10; 삼상 14:17; 삼하 2:26; 왕하 13:7).⁴⁵⁾ 이러한 ‘헌신된 백성’의 모티브는 드보라의 노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사 5:2, 9).

이뿐 아니라 시온 왕에게 주어진 조건이 또 있다. 그것은 ‘젊음의 이슬’(יֵשֶׁל וְיִלְדוּתָא)이다. 여기에는 ‘이슬’과 ‘젊음’이 결합되어 있다. ‘이슬’은 비가 없는 땅에 수분을 공급하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서⁴⁶⁾ 특별히 야훼(호 14:6)와 왕(잠 19:12; 시 72:6)이 가져다주는 생명력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 ‘젊음’은 생명력이 충만한 시기를 가리키는 말로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기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표현은 모두 생명력과 영향력에 대한 은유로서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명력에 대한 의미를 극대화한다.⁴⁷⁾ 이 젊음의 이슬은 ‘거룩의 찬란함’ 가운데서 ‘새벽의 모태’로부터 나온 것이다. ‘거룩의 찬란함’은 왕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생명력이 영광과 위엄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며, ‘새벽의 모태’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왕이 가진 젊음과 생명력은 매일 새롭게 공급되는 새롭고 신선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43) 윌키는 이 날을 ‘거룩한 전쟁’의 시기에 대한 환유(metonymy)라고 설명한다.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6.

44) 쟁어는 이 시편의 초기 판본은 70인경의 번역에서 보여주듯이 야훼를 통한 생식/출생으로서의 죽음을 암시 하지만(시 2:7과 사 9:4 참조), 현재 마소라 본문은 왕의 ‘백성’과 왕에게 ‘아침놀 품으로부터의’ 놀라운 재생의 선물을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08.

45)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08.

46) 이러한 이슬의 생명력을 보여주는 본문들은 여러 곳에서 고찰된다(신 32:2; 창 27:28; 호 14:5; 사 26:19; 미 5:7; 잠 19:12). 이러한 이슬의 생명력에 기초하여 다양한 대상들이 이슬에 비유된다. 야훼(호 14:6)와 모세의 노래(신 32:2)와 왕(잠 19:12)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미 5:6)와 이스라엘(호 6:4; 13:3)이 이슬과 같다고 말한다.

47)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08–209.

(2) 야훼의 맹세: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왕’

① 맹세 인용: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4절)

4절에서 다시 야훼의 발언이 인용된다. 여기에서 야훼의 발언이 직접 인용되며, 그 가운데 왕이 2인칭으로 말 걸어진다는 점에서 분명한 전환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야훼의 발언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맹세’이다.⁴⁸⁾ 이 맹세는 다시는 돌이켜지지 않고 영원히 지켜질 약속을 의미한다. 야훼는 왕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고 맹세하신다. 이것은 왕에게 ‘제사장적 위엄과 기능’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보좌’와 ‘제단’으로 상징되는 왕과 제사장의 두 직임이 하나로 결합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서와는 달리 이스라엘 왕정기에 이스라엘 왕은 마음대로 제단을 침범할 수 없었다(예, 웃시야: 대하 26:16-21). 하지만 특별한 경우 제사장으로서 기능했던 왕의 모습들이 고찰된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경우이다. 왕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고(삼하 6:14),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뿐 아니라 백성에게 축복하였다(삼하 6:13, 17-18; 또한 삼하 24:25 참조). 솔로몬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뿐 아니라 성전 봉헌식에서 화목제와 희생제물의 제사를 드렸고, 백성을 위해 축복하였다(왕상 3:4; 8:14, 55, 62-66).⁴⁹⁾ 하지만 이것은 아론계 제사장직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시온의 왕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제사장직’은 다른 기원과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그것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이루어진다.

구약성경에서 멜기세덱은 본 시편과 창세기 14장 18-20절에만 등

48) 야훼의 맹세에 대해 보도하는 본문들이 여럿 있고(삼 4:2; 6:8; 사 59; 14:24; 시 95 11 등) 다윗에 대한 야훼의 맹세들도 여러 번 나타난다(시 89:4, 36; 132:11).

49) H. -J. Kraus, Psalmen 60-150 (BK), 760; 김정우, 『시편주석 III』, 357;

장한다.⁵⁰⁾ 여기에 멜기세덱⁵¹⁾이 언급된 이유가 다윗계 왕의 제사장직 합법화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도 있다.⁵²⁾ 하지만 시온의 왕에 관한 시편에서 멜기세덱이 언급되는 것은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제왕신학의 재발견’이라는 측면에서 더욱 잘 설명될 수 있다. 과거 여부스족이 차지하고 있던 예루살렘 정복을 통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제사장-왕의 전통이 이스라엘에 의해 수용되고 다윗 왕정에 적용되었다.⁵³⁾ 그러한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제사장-왕’으로서의 시온 왕의 의미가 여기에서 ‘재발견’되고 ‘재확인’되는 것이다.⁵⁴⁾ 이러한 제사장-왕으로서의 모습은 스가랴서에서 확인된다(슥 6:11-13).

50) 따라서 본 시편과 창세기 본문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다.

51) 멜기세덱에 관한 여러 해석이 있다. 쿨란 문서에서 멜기세덱은 종말론적인 구원자로 나타난다. 그는 천상적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미가엘과 동일시된다. 또한 예복서에서는 멜기세덱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을 근거로 그의 영원성을 주장한다. M. Delcor, "Melchizedek from Genesis to the Qumran texts and the Epistle to the Hebrew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2/2 (Dec 1971), 115-135. 랍비들은 그가 쎌의 후손이라고 말한다. 또는 천사나 성령, 성자, 성부를 나타낸다고 한다. 종교개혁자들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 놓았다. 루터는 멜기세덱이 쎌의 후손이라는 견해에 찬성했으나 칼뱅은 그것을 반대했다. B. McNair, "Luther, Calvin and the exegetical tradition of Melchizedek," *Review and Expositor* 101 (Fall 2004), 748-750.

52) R. Routledge, "Psalm 110, Melchizedek and David: blessing (the descendants of) Abraham," *Baptistic Theologies* 1/2 (Aut 2009), 4.

53) 창세기 14장 18절의 '살렘 왕'이란 표현을 통해 멜기세덱이 이스라엘 이전의 살렘/예루살렘의 왕이었음을 알 수 있다. 시편 76편 2절에서 '살렘'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었으며,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고대의 전통을 반영한다. J. A. Fitzmyer, "Melchizedek in the MT, LXX, and the NT," *Biblica* 81/1 (2000), 65. (63-69)

54)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른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의 기능에 대해서 라우틀리지(R. Routledge)는 무엇보다 아브라함 자손을 축복하는 축복의 중재자, 즉 축복의 도구로서의 제사장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R. Routledge, "Psalm 110, Melchizedek and David: blessing (the descendants of) Abraham," 13. 이와 관련하여 제사장-왕으로서의 멜기세덱의 행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었다.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뱅은 모두 떡과 포도주를 가져온 멜기세덱의 행동을 성만찬의 예시로 보는 클레멘트나 제롬이나 어거스틴의 해석을 따르지 않고 '왕'으로서의 행동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루터와 칼뱅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축복 행위와 그에게서 십일조를 받은 것이 '제사장'으로서 행동하는 멜기세덱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 이면에는 구원은 교회의 성만찬에서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된다는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이 자리하고 있다. B. McNair, "Luther, Calvin and the exegetical tradition of Melchizedek," *Review and Expositor* 101 (Fall 2004), 750-753.

② ‘제사장-왕’의 우편에 있는 야훼 (5-6절)

5-7절은 다시 야훼의 맹세에 이어지는 ‘예언자적’ 시인의 설명과 해석이다. 여기에서 ‘제사장-왕’으로서 시온 왕에게 약속되는 야훼의 도움과 시온 왕의 승리가 묘사된다. 5-6절에서는 시온 왕을 돕는 야훼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1-3절에서 구상된 ‘정적인’ 그림이 5-6절에서는 사건으로서 ‘현재화된다.’⁵⁵⁾ 야훼께서 왕의 우편에 계실 것이다.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왕의 근접거리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영광의 자리에서 그를 돕는다는 것을 의미한다(시 16:8; 또한 74:11 참조).⁵⁶⁾ 이때 야훼가 <아도나이> (אֲדֹנָי, “주님”)로 지칭된다. 여기에서 ‘진노의 날’은 야훼께서 열국에 대한 개입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다(시 2:12; 21:9). 그 날에 야훼께서 왕들을 쳐부수실 것이다.⁵⁷⁾ 이 날에 ‘제사장-왕’인 시온의 왕을 도우심으로써 우주적인 야훼의 통치가 실현될 것이다. 이것이 예언서에서는 ‘야훼의 날’로 표현된다(사 13:9; 율 3:1이하; 나 1:8 이하; 습 3:6이하).⁵⁸⁾ 6절은 5절에 대한 부연 설명이다. 열방 가운데 있는 세계적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를 보여준다. 시체들로 가득하게 될 장면묘사는 야훼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질 지를 보여준다(사 5:25; 34:3, 6이하; 램 9:21; 겔 6:13; 32:5이하; 35:8).⁵⁹⁾ 그리고 큰 나라에서 ‘머리를 깨부순다’는 것은 이집트나 바벨론과 같은 구체적인 나라들을 생각할 수 있으나 불의한 왕들을 통해 우주적인 혼돈세력을 암시하는 은유가 그 배경에 함

55)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10.

56) A. Frisch, “YMYNK - A Forgotten Title of the King of Israel in the Book of Psalms,” *Biblische Notizen* (1999), 5-10.

57) 여기에서 ‘쳐부순다’로 번역된 <마하츠> 동사는 14회 등장하나 모두 시문에서 등장한다.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10.

58) 야훼의 날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라. R. Rendtorff, 『구약정경신학』, 하경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516-522.

59) H. -J. Kraus, *Psalmen 60-150 (BK)*, 762.

게 깔려 있다.⁶⁰⁾ 이러한 ‘진노의 날’에 대한 묘사는 3절의 ‘권능의 날’과 대조를 이루며 연결점을 갖는다.

③ ‘제사장-왕’의 승리 (7절)

7절의 묘사가 야훼에 관한 것인가 시온 왕에 관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내용상 왕의 행동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¹⁾ 라아베(Raabe)는 이것이 ‘의도적인 시적장치’로서 모호성을 통해 더 풍성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⁶²⁾ 시편의 흐름상 야훼께서 등장할 곳에 왕이 등장한다. 주어의 모호성 속에서 왕의 역할이 주목된다. 이때 왕은 승리자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한다. 이 장면은 모든 전쟁이 끝나고 승리자가 경험하게 될 사실을 묘사하고 있다. ‘길에 있는 시내에서 마시는 것’ 또는 ‘낮선 물을 마시는 것’은 승리한 백성에 대한 우월성을 보여주는 행동이다. 대적들에게는 도발적인 행동이다. 또한 ‘머리를 든다’는 것은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한다.⁶³⁾ 이것은 1절의 “네 대적들을 네 발의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표현과 대응을 이루며 승리자의 모습을 강조한다. 야훼께서 이기게 하신 승리를 ‘제사장-왕’이 경험하게 된다. 싸움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으나 승리의 영광과 기쁨은 이스라엘 ‘제사장-왕’이 누린다.

60) F. L. Hossfeld/E. Zenger, *HTHKAT*, 211-212; 또한 다음을 참조하라. H. -J. Kraus, *Psalmen 60-150* (BK), 761. 라쉬는 자신의 시편 주석에서 ‘큰 나라의 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인물을 제시하는데, 하나는 이집트의 머리인 파라오로 해석하는 것이며(시 105:20; 겔 29-32장), 다른 하나는 니느웨와 앗시리아의 머리였던 산헤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왕하 19:35-37). M. I. Gruber, *Rashi's Commentary on Psalms*, 645-654.

61) 시편에서 야훼가 ‘마심’의 주어로 등장하는 경우 두 번인데 시편 50편 13절은 수사적 의문문이고, 시편 78편 65절도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 진술되는 표현임으로 이 본문에서 야훼가 주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한편 알키는 6-7절을 지상 왕에 관한 진술로 이해한다.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501, 510-511.

62) P. R. Raabe,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 (1991), 213-227.

63) M. von Nordheim, *Geboren von der Morgenröte? Psalm 110 in Tradition, Redaktion und Rezep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110쪽 이하.

5) 내용요약과 중심주제

시편 110편은 크게 두 단락(1-3절과 4-7절)으로 나누어진다. 각 단락은 야훼의 말씀(1절)과 맹세(4절)에 대한 인용을 통해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시온 왕은 야훼의 통치를 위해 보좌 우편에 초청된다. 그의 통치는 야훼의 초청으로 끝나지 않고 ‘능력의 홀’을 시온으로부터 보내심으로써 그의 통치를 보장하신다. 시온 왕에게는 자신의 권능의 날에 ‘헌신된 백성’이 함께 있을 뿐만 아니라 거룩의 찬란함 가운데 새벽의 모태로부터 생겨난 ‘젊음의 이슬’이 있다. 두 번째 단락에서 야훼의 맹세를 통해 시온 왕은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직이 수여된다. 시온 왕은 단순히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축복의 중재자로서도 기능한다. 여기에서는 야훼의 도우시는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그는 ‘제사장-왕’의 오른편에 계셔서 왕들을 쳐부수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는 큰 나라의 머리를 부수심으로 이 세상에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야훼의 통치는 시온에 세운 ‘제사장-왕’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제사장-왕’은 길가 시내의 물을 마시고 머리를 드는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의 실행자이며 승리자임을 보여줄 것이다. 비록 단락은 두 개로 나누어지지만 주제는 하나로 집약된다. 그것은 시온에 세우신 ‘제사장-왕’을 통한 야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를 보여주는 것이다.⁶⁴⁾

4. 신약성서의 수용

시편 110편은 구약성서 가운데 신약성서에서 가장 빈번한 인용과 암시를 보여주는 본문이다. 시편 110편 가운데 신약성서의 인용은 1절과

64) 이러한 ‘제사장-왕’으로서의 시온 왕은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출 19:6; 또한 계 1:6 참조).

4절에 집중된다. 1절은 공관복음서를 비롯하여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수용된다. 하지만 4절은 오직 히브리서에서만 수용되고 있다.

시편 110편 1절에 대한 직접적인 인용은 두 곳(막 12:36; 행 2:34)에서 고찰된다.⁶⁵⁾ 두 곳 모두 다윗이 이 시편에 저자라는 사실 전제하면서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고자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다. 직접 인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음’이라는 모티브 사용도 여러 곳에서 고찰된다.⁶⁶⁾ 이 모티브가 인용된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부활을 천상에 좌정하심을 통해서 증언하고자 한다(막 14:62; 16:19; 행 5:31; 7:55; 롬 8:34; 엡 1:20; 골 3:1; 히 1:3; 8:1; 10:12; 12:2; 벧전 3:22).⁶⁷⁾ 예수는 하나님의 천상의 보좌에 앉으셨으며 심판과 구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신다. 특별히 1절에서 다루고 있는 ‘즉위’와 ‘원수의 굴복’ 두 가지 모티브의 연결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 시편 110편 1절과 다니엘서 7장 13절의 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여기에서 하늘로 올라서 권능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장차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7절에서 시편 110편 1절의 모티브는 시편 8편 7절과 연결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65) 행 2:33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나누어 준 모습에 견줄 수 있다. E. E. Johnson,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 *Bibliotheca sacra*, 149/596 (Oct - Dec 1992), 435.

66) 공관복음에서 시편 110편 1절은 서로 다른 세 가지 맥락 속에서 전제된다. 그것은 첫째로 '다윗의 자손-다윗의 주님' 논쟁을 다루는 본문에서 나타나고(막 12:35-37; 마 22:41-46; 눅 20:41-44), 둘째로 수난 이야기에서 나타나며(막 14:62; 마 26:64), 셋째로 마가복음의 부록에서 나타난다(막 16:19). H. -J. Kraus, 『시편의 신학』,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 2004), 449.

67) 이 시편에 대한 인용에서 중심적인 사건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예수의 답변이다(막 14:61-64). 이 증언은 뒤따르는 예수의 죽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독교는 예수의 이 증언에 매달려 있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한다. 자신의 주석에 근거한 그리스도의 자기 이해는 초기 교부들에게, 특별히 어거스틴에게 이 시편에 대한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도록 강한 영향을 주었다. B. K. Waltke,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485.

에서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강조한다.⁶⁸⁾ 특별히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 모티브를 수용하여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전개하고자 한다(히 5:6, 10; 6:20; 7:3, 11, 15, 24, 28). 시편 110편 4절의 멜기세덱 모티브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편 2편 7절에 대한 인용과 함께 히브리서 5장 6절에서 사용된다. 히브리서 7장은 시편 110편 4절과 창세기 14장 17-20절의 멜기세덱 본문에 대한 일종의 미드라쉬적 해석의 예를 보여준다.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왕에 대한 시편 110편의 진술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간 천상의 대제사장의 영광을 증언하기 위해 사용된다. 110편의 1절과 4절의 내용을 결합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히 8:1) 그의 모든 원수들이 그의 발판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히 10:12-13) 대제사장 개념을 얻게 된다.⁶⁹⁾

신약성서에서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철저하게 증언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위해 단번에 제물이 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곳에서 그분은 원수들을 정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신다. 이러한 모든 진술이 시편 110편을 통해 예언되고 확인된다. 시편 110편에서 '나의 주'라고 불리는 사람은 다윗 왕위를 잇는 시온의 왕이다. 다윗 언약에 따라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통치한다(시 2:7; 89:26-27; 또한 삼하 7:14; 대상 17:13). 그는 멜기세덱의 방식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한다(4절). 그는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축복의 중재자가 된다. 그는 야훼 보좌 우편

68)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가 왕국을 그의 아버지께 돌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즉 "즉 그가 그의 모든 원수를 그의 발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 할 것이다(고전 15:25).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단지 세상 위에 정적으로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운동이요, 하나님의 투쟁이며 하나님의 승리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는 것이다(고전 15:26). H. -J. Kraus, 『시편의 신학』, 455.

69) H. -J. Kraus, 『시편의 신학』, 449.

에 ‘좌정’하심으로 천상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위임과 도우심으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이러한 시온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님’이다.⁷⁰⁾ 이러한 의미에서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노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노래가 된다.

그러나 시편 110편의 인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아들로써 시온의 ‘제사장-왕’인 메시아가 부활 승천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고 계시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새로운 신분과 존재 양식을 갖게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축복의 중재자가 되어야 할 제사장들이다(벧전 2:5). 루터의 주장대로 모든 신자는 제사장인 것이다.⁷¹⁾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써 왕적 지위를 얻는다(요 1:12; 눅 10:19; 계 2:26-27).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사장-왕’인 것이다(‘왕같은 제사장’[벧전 2:9]; ‘나라[왕]와 제사장’[계 1:6]).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시편 110편에서 말하고 있는 시온 왕에 대한 약속과 동일하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우리들)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또한 롬 6:5-8; 고전 15:51-54 참조)라고 말한다. 이러한 바울의 진술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지고 하늘에 올려져 그리스도의 왕적 통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또한 계 3:21 참조).⁷²⁾ 따라서 시편 110편은 단순히 예수 그리

70) 신약성서는 예수의 인격 안에서 지상적 메시아와 천상적 인자의 두 가지 바람이 동시에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시편 110편이다.

71) 루터는 영적 계급(성직자들과 수도사들)이 세속 계급(평신도들)보다 우월하다는 중세적 주장에 대하여, 모든 세례 받은 자들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명제를 주장했다. B. Lohse,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179.

72) 루터는 윤리적인 의미를 믿음으로 새 존재가 된 그리스도인의 존재양식(고후 5:17)에 대한 진술로 이해한다.

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성취된 예언으로만 읽혀져야 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편 110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시편으로 읽혀지고 적용되는 시편인 것이다. 시온 왕에 대한 약속과 맹세가 ‘제사장-왕’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약속과 맹세가 되는 것이다.

5. 나가는 말

시편 110편은 메시아사상을 견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시편 110편은 시편 2편과 함께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활동을 예언한 중요한 본문으로 해석되었다.⁷³⁾ 하지만 시편 110편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메시아 예언으로만 해석될 수 없다. 시편 110편이 메시아 시편으로서 기능을 하려면 고대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의도되었던 본래적인 의미가 규명되어야 한다. 그러한 문자적-역사적 의미가 분명해 질 때 신앙의 유비 안에서 2차적인 적용이 제대로 가능해 질 수 있다.⁷⁴⁾ 그러한 의미에서 시편 110편은 다음 세 가지 차원

시편 110편 1절에서 그러한 해석의 예를 볼 수 있다. “내 우편에 앉으라”는 의미는 이 전에 죄의 종이었던 영이 이제는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보좌에 앉는 것을 말하며, 마치 죄악된 지체를 지배하는 왕과 같이 앉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한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편에 앉아 있기 때문(엡 2:6)이라는 것이다(WA 4, 227, 18–20). H. Graf Reventlow, *Epochen der Bibelauslegung. Band III Renaissance, Reformation, Humanismus* (München: Verlag C. H. Beck, 1997), 74. 또한 구약성서의 ‘제왕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의미를 넘어서 그리스도들에 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대해서 필자의 졸고를 참조하라. 하경택,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시2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 『서울장신논단』 15 (2007, 4), 7–40, 특히 36–37쪽.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말한다. Erwin Mülhaupt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528.

- 73) 하나님 아들로의 상생을 보여주는 네 가지 사건(예수의 세례, 변화산 사건, 부활과 승천)의 서술에서 두 시편은 중요한 인용된다. H. -J. Kraus, 『시편의 신학』, 438.
- 74) 문자적-역사적 이해와 신앙의 유비 안에서의 이해에 관하여 다음을 보라. E. E. Johnson,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 *Bibliotheca sacra*, 149/596 (Oct - Dec 1992), 428–437.

의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시편 110편은 야훼의 통치를 이루는 고대 이스라엘의 ‘시온 왕’에 관한 시편이다.

둘째, 시편 110편은 보좌 우편에서 ‘제사장-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

셋째, 시편 110편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약속이다.

6. 참고문헌

김정우. 『시편주석 III』. 서울: 종신대학교출판부, 2010.

김태경. “시편연구사 - 1990년 이후 현재까지.” 『구약논단』 53 (2014. 9), 325-356.

손세훈. “시편 표제어 첨가에 관한 이해.” 『구약논단』 36 (2010. 6), 92-115.

하경택. “‘세계의 어머니’로서의 시온 - 시편 87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 『장신논단』 47/2 (2015. 6), 13-40.

하경택.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 시2편에 대한 주석적 연구.” 『서울장신논단』 15 (2007. 4), 7-40.

Allen, L. C. *Psalms 101-150* (WBC). Waco, Texas: Word Books, 1983.

Brown, W. P. 『시편』. 하경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5.

Delcor, M. “Melchizedek from Genesis to the Qumran texts and the Epistle to the Hebrews,” *Journal for the Study of Judaism in the Persian, Hellenistic and Roman Period*, 2/2 (Dec 1971), 115-135.

- Eising, H. Art. מֶלְכִּי. *ThWAT V*, 119-123.
- Fitzmyer, J. A. "Melchizedek in the MT, LXX, and the NT," *Biblica* 81/1 (2000), 63-69.
- Frisch, A. "YMYNK – A Forgotten Title of the King of Israel in the Book of Psalms." *Biblische Notizen* (1999), 5-10.
- Gesenius, Wilhelm/Kautzsch, Emil/Bergsträsser, Gotthelf. *Hebräische Grammatik*. Hildesheim/Zürich/New York: Olms, 1995.
- Gruber, M. I. *Rashi's Commentary on Psalms*. Philadelphia: Jewish Publication Society, 2007.
- Hilber, J. W. "Psalm CX in the Light of Assyrian Prophecies," *Vetus Testamentum* LIII/3 (2003), 353-366.
- Hilber, J. W. *Cultic Prophecy in the Psalms* (BZAW). Berlin, New York: Walter de Gruyter, 2005.
- Hossfeld, F. L./Zenger, E. *Psalmen 101-150* (HThKAT). Freiburg: Herder, 2008.
- Johnson, E. E. "Hermeneutical principles and the interpretation of Psalm 110," *Bibliotheca sacra*, 149/596 (Oct - Dec 1992), 428-437.
- Keel, O. *Die Welt der altorientalischen Bildsymbolik und das Alte Testament: Am Beispiel der Psalme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1972.
- Kraus, H. -J. 『시편의 신학』. 신윤수 옮김. 서울: 비블리카아카데미아, 2004.
- Kraus, H.-J. *Psalmen 60-150* (BK).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80.
- Lohse, B. 『루터 연구 입문』. 이형기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3.

- Lubac, de, S. J. Henri. *Medieval Exegesis: The Four Senses of Scripture*, vol. 1. Trans. Mark Sebanc. Gand Rapids: Eerdmans, 1998.
- McNair, B. "Luther, Calvin and the exegetical tradition of Melchizedec," *Review and Expositor* 101 (Fall 2004). 747-761.
- Mülhaupt, Erwin (Hsg.). *D. Martin Luthers Psalmen = Auslegung. 2. Band Psalmen 26-90*.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2.
- Nel, P. J. "Psalm 110 and Mechizedek Tradition," *JNSL* 22.1 (1996), 1-14.
- Neumann-Gorsolke, Ute. *Herrschen in den Grenzen den Schöpfung. Ein Beitrag zur alttestamentlichen Anthropologie am Beispiel von Psalm 8, Genesis 1 und verwandten Texten* (WMANT 101).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4.
- Nordheim, von, M. *Geboren von der Morgenröte? Psalm 110 in Tradition, Redaktion und Rezeption*.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Verlag, 2008.
- Raabe, P. R. "Deliberate Ambiguity in the Psalter." *JBL* 110 (1991), 213-227.
- Rendtorff, R. 『구약정경신학』. 하경택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09.
- Reventlow, H. Graf. *Epochen der Bibelauslegung. Band III Renaissance, Reformation, Humanismus*. München: Verlag C. H. Beck, 1997.
- Routledge, R. "Psalm 110, Melchizedek and David: blessing (the descendants of) Abraham," *Baptistic Theologies* 1/2 (Aut 2009), 1-16.

- Seybold, K. 『시편 입문』. 이근호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 Waltke, B. K. *The Psalms as Christian Worship. A Historical Commentary*. Grand Rapids, Mi./ Cambridge, U.K.: W.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10.
- Wood, D. R. W./Douglas, J. D. (ed.). *New Bible Dictionary*. Leicester: IVP, 1996.
- Zobel, H.-J. Art. ׀׀׀. *ThWAT VII*, 351-358.

검색어

시편 110편

제왕시

제사장-왕

메시아 예언

멜기세덱

The Reign of Yahweh through the ‘Priest-King’ -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salm 110

Kyung-Taek Ha, Dr.Theol.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This paper attempts to interpret and apply Psalm 110. Psalm 110, which is the most frequently cited Old Testament text in the New Testament, has drawn much attention since the age of the early Church Fathers. This psalm was interpreted as a text that predicts the ministry and activities of Jesus Christ, thus forming a firm foundation of the messianic thought. In particular, the references to the ‘sitting on the right side of the throne of God’ and the ‘eternal priesthood in the order of Melchizedek’ were the main texts that enable Psalm 110 to be read as a prophecy of Jesus Christ.

However, it cannot be confined to a messianic prophecy of Jesus Christ. Originally, it was a psalm that had been used as a so-called

www.kci.go.kr

“Royal Psalm” in the situations of ancient Israel. In such a current, in the New Testament time it could be understood as a psalm with prophetic meanings about Jesus Christ. Further, it can be understood as a text that refers to Christians as “priest-kings,” who are admitted by faith as children of God and people of the covenant.

In that sense, Psalm 110 has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First, Psalm 110 is a psalm about the ancient Israelite king of Zion, who fulfills the reign of Yahweh.

Second, Psalm 110 is a prophecy of Jesus Christ performing the duties of a priest-king on the right side of the throne of God.

Third, Psalm 110 is a promise to Christians who participate in God’s reign with Christ.

Keywords

Psalm 110

Royal psalm

priest-king

Messianic prophecy

Melchizedek

- 투고일: 2017년 10월 1일
- 심사일: 2017년 10월 25일
- 게재 확정일: 2017년 10월 30일

www.kci.go.kr